

수업 시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

1. 선생님께는 무조건 “Could”를 써야 한다? → No!

영어에서 높임말은 우리말의 높임말과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높임말이라기보다 공손함, 또는 정중함을 표현하는 말이죠. 이러한 표현으로 대표적인 예는 “please”이며, 의문문에서는 “could”나 “would”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께 “please”를 빼고 요청한다거나 그냥 “Can you ~?”처럼 질문한다고 해서 건방지다고 오해받진 않는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중함” 또는 “공손함”의 표현이지, “높임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Can you ~?”처럼 질문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특별히 정중하거나 공손하게 요청하거나 물을 상황이 아니라면 “please”나 “could”는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선생님 이름을 막 부르는 것은 실례다? → No!

보통 선생님을 “Teacher Daniel”처럼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선생님보다 나이가 가까우며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어쩌다 한 번 사용할 법한 표현이므로, 일반 학생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상당히 어색한 호칭이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선생님을 부를 때 선생님의 성 앞에 “Mr.,” “Mrs.,” “Ms.”를 붙여 “Mr. Park”처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이상의 성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선생님과 나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냥 선생님 이름으로 선생님을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Mr.,” “Mrs.,” “Ms.”는 무조건 “성(last name)” 앞에만? → No!

간혹 첫 만남에서 성을 모르는 경우, 또는 비격식적으로 말할 때 성이 아닌 이름 앞에 “Mr.,” “Mrs.,” “Ms.”를 붙이기도 합니다.

4. 허락을 구할 땐 무조건 “May”? → No!

보통 허락을 구할 때에는 조동사 “may”를 사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현대 영어에서는 무언가를 해도 되는지 상대방에게 가볍게 물어볼 때에는 “may”보다 “can”을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묻거나 공손히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만 “may”를 좀 더 많이 사용하죠.

